

##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David Kim (USA-DuPage)

The Key Verse: Matthew 9: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 Part I: 탕자를 미국 선교사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David Kim 입니다. 1960년 태어났고, 한국 이름은 김규동입니다. 그 의미는 동쪽의 Golden Star(갯별) 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동쪽인 미국에 선교사로 보내사,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제 삶은 밝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사업에 실패를 하셨고, 바람을 피워 어머니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 친구가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탕자처럼 살기 시작 했습니다. 1980년 인하대학교 2학년 때 반발심에 데모에 참여 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갑자기 전 살 소망을 잃었고, 하얀 눈이 덮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 죽는 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에서 절 구원해 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셨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UBF 목자를 보게 하셨고, 제가 군 제대 후, 전화번호부를 통해 본부 UBF 에 전화를 하고 종로 Center 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신 파울루스 차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 문지기를 하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 성경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14 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공부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죄악 된 세상에 저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84년 여름 수양회에서, 아버지와 옛 여자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죄와, 방탕한 과거의 정욕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의 죄 짐을 기적처럼 제거해주시고, 위궤양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마가복음 8:34 절 말씀을 기초로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졸업의 열매로 4명의 제자를 세워 주시고, 이들을 국민대 역사의 개척자들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중학교 체육교사의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종로 John Team 모임과 장막 생활, CBF 말씀 강사 등을 통해 준비 시키셨습니다. 1986년, 축복의 하나님께서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서울대 치대를 개척하고 있던, 조이김 선교사과 선교가정을 이뤄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서울대 치대 개척역사에 동참토록 인도하셨고, 관악 3 부에 몇몇 믿음의 목자 가정들을 세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3년 동역자의 RN Pass 를 통해 저의 가정이 미국 LA 로 나갈 길을 여셨습니다.

### Part II: 선교사로써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

LA Long Beach 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 먹고 살기 위해 저는 새벽 5 시에 일어나, 오전에는 미국식당에서 접시 닦기와 요리하는 막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CSULB 캠퍼스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밤에는 시립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준비 공부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 등록금을 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리 선교사님을 통해, 영적 훈련을 위해 시카고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1996 년 가족들과 시카고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카고에서 성경과 영어를 새롭게 공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UIC 대학에서 하나님의 양 무리들에게 매주 12 팀 일대일을 섬기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귀와 입을 여시고, 많은 미국 대학생들의 목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좋은 직장을 잡아 가정을 물질적으로 섬기고, 두 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는 제가 돈을 벌기 보다는, 풀타임 성경선생으로 헌신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두 딸 한나와 에스더를 잘 자라나게 하였고, 저희 가정을 통해 열매를 맺어 나가셨습니다.

### Part III: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UIC 대학에서, 1997 년 하나님께서는 제가 Tami 라는 자매 양을 피싱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첫 성경공부 때 하나님은 어두운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창세기 1:3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 찾아 오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그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탄예배를 앞두고 아리조나에 사시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딸이 시카고 성탄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길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랍게도 그녀는 시카고에 남았을 뿐 아니라, 100 페이지가 넘는 인생 소감을 쓰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아온 죄악을 고백했고, 그로 인해 자살하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하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성탄 춤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위해 기쁨과 큰 감격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춤추는 하늘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Rob McHugh 목자와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의대에 가고자 준비공부를 해왔었는데, 결혼 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바로 UIC 의대에 들어가도록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과 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믿음직한 요회 목자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의대 후배들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997 년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내 Joy 를 통해서 UIC 에서 Adam 이라는 형제를 피싱하도록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에게 성경공부를 하자고 얘기 했을 때, 그는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제 아내는 다만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성경공부 약속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제 아내와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학기 이후, 여름방학과 함께 그는 캠퍼스에서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소만을 갖고 서울에서 대전거리만큼이나 떨어진 그의 집을 방문 했을 때, 저와 조이 선교사는 온 종일 홀로 집에서 TV 만 보고 있는 외로운 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었던 저는 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30 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일주일에 한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그를 심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는 그와 공부할 때마다 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6 장 33 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심고자 했습니다. 3 개월 후부터 이 형제는 **UIC campus** 에 와서 신실하게 일대일 성경공부를 했고, 매주 주일에는 집에 가 있는 그를 **Chicago** 예배에 초청하기 위하여 그의 집을 심방 갔습니다. 중풍병자 같은 이 한 사람의 주일예배 참석을 돕는데 온종일 걸렸지만, 그의 계속되는 예배 참석으로 인하여 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그는 자기가 일하는 맥도날드의 사장이 주일날 일하기를 원해서 예배를 안가기로 결정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마태복음 6 장 33 절 말씀을 기초해서 순종하여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도전하여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였고, 그때 이후로 그는 주일 예배를 한번도 빠지지 않았고, 금요 소감모임에서 은혜로운 소감을 꾸준히 발표하여 왔습니다. 그는 작년에 **UIC** 공대를 졸업했고, **Dr. Ben Toh**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풀타임 목자가 되기 위해서 **Intern** 훈련을 시카고에서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aul Koh** 선교사님 양인 체를 자매목자님과 목자가정을 이루어 아주 행복한 가운데서 어린 캠퍼스 양 떼들을 힘있게 섬기고 있습니다.

2000 년 또 제 동역자 조이는 **UIC** 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던 **Rosa Garcia** 자매님을 피싱하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성경공부를 꾸준히 4 년간 하고 변화되어서 **Alberto** 목자님과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자매님은 옛날 보이프렌드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만 간절히 그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 이런 아내를 용서하고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섬겨서 자매님은 감동을 받고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순종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육적인 자매님들을 희생적으로 돕는 목자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 Part IV: COD 통해 10 개 campus 를 개척하실 하나님

이렇게 **UIC** 역사를 섬기는 가운데서 저는 틈틈이 **Chicago** 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COD** 캠퍼스를 심방하여 **fishing** 도 하고 일대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 년 **ISU** 국제수양회에 8 명의 새 양이 **COD** 에서 참석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꼬투리로 하나님은 2003 년 가을부터 **COD** 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2 년제 캠퍼스라 2 년 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COD** 개척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하여 매주 주일 영어 메시지를 깊이 있게 써서 온 마음을 다해 전하고, 매주 **12 Team** 의 일대일로 양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 **Jeremy Hajek** 을 **COD** 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이번 세계선교보고 대회에 미국을 대표하는 인생소감 강사로 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Sly Marinca, Steve Slattery, Matthew Monroe** 형제들을 일대일 성경선생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COD** 에서 개척한 지 4 년 되었는데 이렇게 **COD** 에 남은 이 목자들 외에 일대일을 해온 여러 모양의 학생들을 하나님은 **LA, New York, WIU, ISU, NIU, U of I, Milwaukee** 등지에 파송토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 얻은, 피싱하는 방법, 양 무리와 효과적으로 일대일 하는 방법들을 **Chicago** 근처 캠퍼스를 개척하는 동역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저를 작년부터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존경하는 전요한 박사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미국을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DuPage** 주위 에는 10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지도를 사서 벽에 붙이고, 개척해야 할 캠퍼스들을 모두 표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젊은 선교사들을 도와서, 그들이 제자를 세우도록 돕고, 그 제자들이 다른 캠퍼스로 옮겨 갈 때, 함께 따라 가는 식으로 10 개의 캠퍼스를 개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Gideon Bahn** 선교사님 가정, **Andrew Hwang** 선교사님 가정과의 동역을 축복하시고, 120 명 예배를 이루고, COD 를 통해 10 개 캠퍼스를 개척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